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나주시 보상 피해조사 착수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전남도와 피해 원인 규명 등 다각적 노력 재해 인정 받아내

올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병해충 발생, 생산량 감소 피해가 지자체 노력에 힘입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지역 일조량 부족 현상의 농업재해 인정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 감소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나주시가 전남도와 함께 이번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9일부터 4월5일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농가는 기간 안에 농경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나주시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일조 시간이 전년 대비 198시간(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엔 지속되는 흐린 날씨와 강우로 일조 시간이 극단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월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일조량은 약 6시간, 18일부터 25일까지는 8일 동안에는 약 1시간에 불과해 딸기, 멜론 등 시설원예작물의 생육 지연, 기형과 발생 피해가 속출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여타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운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8일 남평읍, 세지면 지역 딸기·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작물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 방문을 통한 일조량 및 품목별 피해현황 분석, 멜론 생육불량 원인 규명, 관리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정부 건의 등 농업재해 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난 13일 나주시지역 농가 피해 현장을 찾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일조량 감소로 인한 시설원에 농작물 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대상의 기타 자연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겨울철 경영비 가중과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농가에 농업재해가 인정되면서 농업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 인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운병태 시장이 지난 8일 남평읍과 세지면 지역 딸기·멜론 재배 농가를 찾아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지난해 강진군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열린 '벚꽃 삼십리길 축제'에서 밤 시간대 은은한 조명을 받은 벚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 2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화전 부치기·외갓집 체험 등 행사 22일부터 화려한 야간 경관 연출

강진군은 제7회 강진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가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연계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은 군동면에서 작천면을 잇는 수려한 삼십리 벚꽃길로 매년 봄을 느끼기 위해 군민들과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이다.

행사기간 중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봄꽃길 보물찾기 ▲스마트폰 촬영사진 인화 ▲나만의 화전 부치기 ▲군동 외갓집 체험 ▲타로카드점보기 ▲어린이 버블체험 ▲페이스페인팅 ▲차 무료시음 코너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주무대에서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신나게 만들어 줄 벚꽃길 즉석 노래자랑과 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된 먹거리 부스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도 같이 운영한다.

오는 22일부터는 벚꽃 개화기간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강진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금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금곡사 벚꽃길을 찾아 아름다운 봄꽃 향연을 마음껏 즐기고 이 공간이 잠시나마 지친 심신을 달래는 안식처로 이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화순 고향사랑기부제 부부 2년 동반 기부 눈길

무진료재단 김재택 이사장과 배우자인 현대노인요양원 이정아 원장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은 김 이사장 부부가 최근 화순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재택 이사장은 화순 출신으로 화순 초·중학교를 졸업했다. 부부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별도로 무진료재단 임직원들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550만원을 화순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기부금은 김재택 이사장과 이정아 원장이 각각 500만원씩 기부한 것으로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및 보건 증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재택 이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의 발전을 응원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기부금이 지역의 발전과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에 참여한 함평군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9일 대동면 옥동마을을 찾아 주민을 대상으로 아·미용 봉사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전남행복버스 함평 옥동마을 찾아 봉사활동

함평군과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지난 19일 대동면 옥동마을을 찾았다.

전남행복버스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아·미용,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를 지원한다. 행복버스에 탄 함평군 자원봉사자 10여 명은 옥동마을 주민에게 기초검진, 구강검진 등과 손톱관리, 영화 상

영 등 다양한 문화지원을 제공했다. 봉사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사지와 머리 염색 등도 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행복버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 감사의 전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올 첫 추경예산 5400억원 규모 편성

본예산보다 511억원 늘어

담양군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511억원 늘어난 5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 54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889억원보다 10.5%(511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0억원(10.61%), 특별회계 1억원(1.9%)이 각각 증액됐다.

담양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된다.

추경예산안에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수입 부족분을 보충하고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4개 사업·76억원)과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9개 사업·64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농업 분야에서 164억원, 국도·지역 개발 66억원, 교통·물류 65억원, 문화·관광 55억

원, 사회복지 48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사업은 ▲농어촌복합노인복지타운 개선 공사 8억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원 ▲담양호 수변길 조성사업 7억원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보전금 14억원 ▲담양시장 재건축 23억원 ▲장평전통시장 재건축 8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1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8억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18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0억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25억원 ▲지역재조사 조정금 18억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4억원 등이다.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24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3억원 ▲신계정수장 이전 증설·정수처리 시설 설치 27억원 ▲생활지원회소센터 확충 12억원 등 4개 사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 15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10억원 ▲미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담양자활센터 신축 15억원 ▲정년농부 육성 8억원 등 9개 사업을 반영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최근 열린 '1차 장흥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이 올해 수상자 선정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5000만원 시상금... '장흥문학상' 운영 회의

올 수상자 선정 방침 등 논의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장흥문학상' 운영을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장인 한승원 작가와 6명의 운영위원은 올해 장흥문학상 수상자 선정 방침과 운영 방안 등에 논의했다.

장흥문학상은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문학 관광기행 특구 장흥'의 위상을 높이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시상금이 주어진다.

1회 장흥문학상에서는 임철우 작가의 '돌담에

속삭이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승원 위원장은 “한국 문학을 선도할 작품을 엄선해 올해도 장흥문학상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훌륭한 작가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한승원 작가와 6명의 운영위원은 올해 장흥문학상 수상자 선정 방침과 운영 방안 등에 논의했다.

조선 시대 기봉 백광홍, 육봉 백광훈, 준재 위백규 등 이름을 떨쳤던 문인들이 장흥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문맥은 이정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등의 소설가와 김낙촌, 김재현, 김영남, 이대홍 등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와 시인들이 이어받았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수경재배 농가 '양액 처방서' 발급

시설 분석기관 의뢰 불편 해소

장성군은 수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양액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양액 처방서는 수경재배에 쓰이는 양액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그동안 처방서를 전남 농업기술원이나 시설 분석기관에 의뢰해 받을 수 있었다. 장성군이 이번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군 자체 발급을 시작하게 됐다.

분석 항목은 질산, 인산, 중탄산, 미량요소 등 20개 인덱스이다. 수경재배 농가가 시설재배용 원수를

채취해 검사 의뢰하면 장성군이 전용 분석기를 이용해 무료로 성분을 분석한 뒤 처방서를 발급한다.

장성군은 수차례 다른 시군과 교차실험을 하며 분석 정확성을 검증했다.

양액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500ml 통에 원수를 담아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061-390-8439)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농업 전문가 상담까지 제공할 방침”이라며 “농가 경영비 절감과 재배 성과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